

〈주생전〉 다시 읽기*

- 시대적 상황과 인물 성격을 중심으로 -

정 규 식**

차 례

1. 문제 제기
2. 작가 권필과 시대적 상황
3. 〈주생전〉의 주생과 인물 성격
4. 〈주생전〉의 주제
5. 마무리

국문초록

본고는 〈주생전〉을 작가 권필이 활동하던 조선 중기의 시대적 상황과 작품 속 주인공 주생의 인물 성격을 바탕으로 작품을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주생전〉의 작가 권필의 생애 및 그의 몇몇 작품들, 그리고 〈주생전〉의 서두에 등장하는 주생의 상업 종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이 남녀의 애정문제를 매개로 개인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현실 비판적 작품으로 읽힐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작가 권필이 활동하던 조선 중기는 서인과 동인의 격렬한 대립이라는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정치 현실과 상업의 활성화라는 사회 현실이 중첩되고, 더불어 임진란의 혼란이 가중되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였다. 당대의 지식인을 자처하는 작가 권필은 <주생전>을 통해, 본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익과 부를 좇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운수에 따라 관직에 오르내리는 당대의 정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 같은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기 위해 서두에 주생의 상업 종사 이력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성적 욕망을 매개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하는 주생을 그렸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더 높은 자리(지위, 관직)를 차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그 욕망을 추구하려는 작중 인물(주생)을 통해, 이익과 부를 우선시하는 상업 지향적 현실과 벼슬이나 지위가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현실 등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생전>은 상업을 통한 자본 지향이라는 사회 현실, 능력이나 지혜와 무관한 자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정치 현실 등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을 문학적 구조물로 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주생전>, 권필, 주생, 이익, 욕망

1. 문제 제기

<주생전>의 주생은 특이한 인물이다. 중세적 질서 체제 하의 사대부 남성으로서 장사치의 삶을 살고자 한 것이나 두 명의 여성 사이에서 삼각연애를 펼치는 모습, 전란에 참전하였음에도 연애 감성에 충만해 있는 모습 등은 당시 조선 사회의 일반적인 사대부 남성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이다. 주생에게는 전기적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들도 나타나지

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면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슷한 시기 <운영전>의 안평대군이 그러하듯, <주생전>에서 주생 같은 남성 주인공이 등장함으로써 이 소설은 기존의 애정전기소설과 확연히 다른 작품이 되었다. <주생전>의 이러한 특징은 배도라는 인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주생이라는 인물이 지닌 독특한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주생 같은 인물을 설정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주생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특히, 자신을 돌봐주었던 대상(배도)을 버리고 다른 대상(선화)에게 몰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주생의 독특한 면모들은 이전의 소설 주인공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특징들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논의에서 이전의 애정전기소설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모습¹⁾이라고도 하였다. 그의 이런 면모는 표면적으로는 삼각연애를 위한 이기적 행위로 보이지만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면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삼각연애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생의 독특한 행위를 작가의 생애 및 작품, 그리고 <주생전>의 서두에 제시된 서술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주생전>의 서두에서 주생은 스스로가 공맹에 구속되고 세속에 매몰되어 인생을 보내는 것을 한탄하고, 가진 재산으로 배를 구입하여 강호를 오가며 잡화를 거래하여 이익을 취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이 내키는 대로 돌아다니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점 주생의 인물 성격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 논의 가운데도 이 부분에 주목한 논의들이 더러 있었으나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이에 본고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작품 서두의 상업 중사 부분에 주목하여 주생이라는 인물을 기존 관점과 다른 방향으로 이

1)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2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5쪽.

해할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여 <주생전>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주생전>에 대한 기존 논의는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 장르론, 작품론, 문체론, 작가론, 이본 등 다양한 차원의 논의들이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본고와 연관되는 주생의 인물 성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주생은 인생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닥치는 불행을 피하고 극복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인물,²⁾ 여성 편력적 인물,³⁾ 부와 신분상승의 욕구를 꿈꾸었던 인물,⁴⁾ 탐욕과 이기에 가득 찬 파렴치하고 자가당착적인 인간,⁵⁾ 탐심과 욕망으로 상대를 배신하는 인물,⁶⁾ 입신에 대한 집착력이 대단한 인물,⁷⁾ 사족 남성의 계층적 이기심을 발현하는 인물로서⁸⁾ 17세기 이후 양반층의 내부에서 분리되어 나간 소외 지식계층의 전형,⁹⁾ 불안한 인간형,¹⁰⁾ 일상적 욕망에 충동되는 인물,¹¹⁾ 어떠한 가치와 이념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낭만적 열정만이 가득 찬 존재¹²⁾ 등으로 이해되었다.

이처럼 주생의 인물 성격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주생이 충동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서 출세와 입신의 욕망으로 가득 찼으며 이를

2) 김일렬, 『주생전 소고』, 『어문논총』 11집, 경북대 국문학과, 1977, 10쪽.

3) 이종목,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79쪽.

4) 전송열, 『<주생전>의 사실성과 그 한계』, 『한성어문학』 10집, 한성어문학, 1991, 126쪽.

5) 정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문학적 성격』, 『한양어문연구』 9집, 한양어문연구회, 1991, 109쪽.

6) 박희병,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28쪽.

7) 정병호, 『<주생전>과 <위경천전>의 비교 고찰』, 『고소설연구』 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14쪽.

8)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126쪽.

9) 박일용, 위의 책, 130쪽.

10) 정한국, 『17세기 애정류 한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0, 98쪽.

11)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79쪽.

12) 김수연, 『명대 주변부 문인의 삶과 <주생전>』, 『영주어문』 40집, 영주어문학회, 2018, 101쪽.

추구하기 위해 선화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강렬하게 발현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주생이 선화를 본 이후 배도를 대하는 태도나, 배도의 죽음 이후 주생에 대한 서술 등은 기존의 논의들에서 제시한 주생의 인물 성격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극복하기 작가 권필(權穽, 1569~1612)이 <주생전>을 창작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의 몇몇 작품, 주생의 상업 종사 등을 중심으로 주생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분석하고 나아가 <주생전>의 주제를 재해석할 것이다.

2. 작가 권필과 시대적 상황

<주생전>의 작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¹³⁾ 《화몽집(華夢集)》 소재 <주생전>의 말미에 ‘癸巳仲夏 無言子權汝章記’라는 기록이 있어 이 작품의 작가를 권필로 추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여기 등장하는 ‘汝章’은 석주(石洲) 권필의 자(字)이므로 여러 연구자들은 권필이 계사년(1593)에 <주생전>을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권필의 생애를 살펴보면 <주생전>을 창작할 이 당시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나이 19세에 과거에서 연거푸 두 차례나 장원을 하였으나 글자의 오류로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동인의 거두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득의하여 영의정에 오르고 그의 스승 정철(鄭澈, 1536~1593)이 1591년의 왕세자책봉 문제로 파직, 귀향을 가게 되어 서인이 서서히 몰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권필은 이 신묘당사(辛卯黨事)¹⁴⁾ 이후 스승 정철의 유배 및 죽음, 서인과 동인의 격렬한 대립 등을

13) <주생전>의 작가에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권필 설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본고도 이에 따른다.

경험하면서 당시의 현실 정치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임진란이 발발하여 가족들과 피난길에 올랐는데 이듬해 계사년(癸巳年, 1593)에 부친 권벽(權擘, 1520~1593) 마저 사망하게 된다. 권필은 이후 방랑의 시간을 보냈다. 1594년에는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큰누나가 있는 강화에 잠시 머물렀다가, 2년 뒤 그의 나이 28세인 1596년에는 호남지역으로 여행을 떠난다.¹⁵⁾

권필은 이 호남 여행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중정도설(從政圖說)>이라는 짧은 글을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내가 소싯적부터 이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 또래들이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손을 휘저어 못 하게 했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객지인 호남에 가 있다가 하루는 우연히 걸어 들관의 정자에 갔더니, 몇 사람이 한창 이 중정도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내가 곁에서 자세히 보니 관반과 작질이 올라서 귀하게 된 자도 있고 내려가서 천하게 된 자도 있으며, 처음에는 물러났다가 나중에 나아간 자도 있고 처음에는 나아갔다가 나중에 물러난 자도 있으니, 여기에도 무슨 운수가 있는 듯하였다. …(중략)… 아아! 내가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건대 이 중정도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은가. 후자가 말하기를 “이는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다. 그 기교(機巧)의 지혜로 이룬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¹⁶⁾

14) 1591년 신묘년에 이산해와 김공량(金公諒)이 정철의 왕세자책봉 건의를 빌미로 정철을 제거한 사건을 이른다.

15)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146~152쪽.

16) 『石州集』外集 1卷, <從政圖說>, ‘余自少時 不嗜此戲 見儕輩爲之 則必麾而去之 歲丙申 客于湖南 一日 偶步出野亭 有數客方設此戲 余從傍而諦視之 有升而貴者 有降而賤者 或始黜而終陟 或始陟而終黜 疑亦有數存焉於其間也 …(中略)… 嗚呼 余觀夫今之從政者 其有不類乎是圖者耶 或曰 非偶也 其機巧之智 有以致之 此說余未信之’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BD 웹 사이트 (<http://db.itkc.or.kr/>)에서 인용하였다. 『석주집』 인용은 이하 동일함을 밝힌다. (검색일: 2020.09.07.)

이때는 그의 나이 28세로,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동안 수많은 일을 경험한 뒤이다. 장원한 과거의 합격 취소, 동인과 서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쟁, 정철과 이산해의 삶, 전쟁의 참상과 가족의 죽음 등 한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경험을 한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종정도 놀이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위와 같이 생각한 것이다.

종정도 놀이는 종경도(從卿圖), 승경도(昇卿圖)라고도 하는데 벼슬이름을 그려서 주사위 등을 던져 관직의 진퇴를 다투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이 놀이는 민간에서 백성들이 심심풀이로 하는 놀이의 하나다. 그런데 권필은 어릴 적부터 이 놀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놀이를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놀이의 승패가 순전히 불확실한 운에 의해 결정되는 놀이의 규칙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보니, 이 놀이가 세상살이와 닮아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권필이 보기에는 당대에 관직에 오른 자들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혹은 운이 다하거나 나쁘면 언제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벼슬 세계의 운명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정철과 이산해, 서인과 동인 등의 부침을 통해 권필이 깨달은 세상의 이치다. 하지만 권필이, 진정으로 벼슬이 능력과 지혜가 아닌 운으로 오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당대의 정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종정도 놀이로 이를 비꼰 것이라 할 수 있다.

권필의 또 다른 글에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물을 비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창맹설(倉氓說)>이라는 글인데 <주생전>의 해석에 긴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윽고 그 아들은 구멍이 작아서 쌀을 많이 꺼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여 끌로 파서 구멍을 크게 만들어 하루에 몇 말씩 쌀을 취하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또 끌로 파서 구멍을 더 크게 만드니, 창고를 지키는 관리가 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였다.

아! 줌도둑질은 소인의 악행이지만 진실로 만족할 줄 알면 자기 몸을 보전할 수 있으니, 그 백성이 이러한 경우이다. 되와 말의 곡식은 하찮은 이익이지만 진실로 만족할 줄 모르면 자기 몸을 죽일 수 있으니, 그 백성의 아들이 이러한 경우이다. 하물며 군자로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 하물며 천하의 큰 이익을 취하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말할 나위 있겠는가.¹⁷⁾

글의 내용은 구비설화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와 닮았다. 국가에게 쌀을 저장해 두는 창고 옆에 살던 사람이 작은 구멍으로 하루 다섯 되만 훔쳐서 수 십 년간 먹고 살았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 아들은 욕심을 부려 구멍을 크게 만들었고 결국 창고지기에게 발각되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위 인용문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아들은 매개일 뿐이고 본뜻은 바로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듯, 권필은 도둑질은 나쁜 짓이라 전제하고는, 그럼에도 만족할 줄 알면 자기 몸을 보존할 수 있지만 만족할 줄 모르면 자기 몸을 죽이게 된다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백성(도둑)과 백성의 아들(도둑의 아들), 군자와 천하의 큰 이익을 취한 자를 대비하면서,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 <창맹설>의 궁극적인 주제는 이미 천하의 큰 이익을 지닌 사람들의 끝없는 이익과 욕망 추구를 비판하는 것인데 이는 당대의 정치·사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권필은 만족할 줄 모르고 이익과 욕망만을 좇는 무리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충만했다. 이는 앞서 살핀 그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을

17) 『石州集』外集 1卷, <倉氓說>, ‘既而 恨窺小不可多取 鑿而巨之 日取數斗 猶不足 又鑿而巨之 倉吏覺其奸 拘而戮之 噫 穿窬 小人之惡行 苟能知足 亦可以保身氓是也 升斗 利之細者 苟不能知足 亦可以殺身 氓之子是也 況君子而知足者耶 況取天下之大利而不知足者耶(검색일: 2020.09.07.)

텐데 그의 이런 시각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사오당명(四吾堂銘)>은 ‘내 밭을 갈아서 먹고(食吾田)/내 샘물 길어서 마시며(飲吾泉)/내 천분을 지키며 살다(守吾天)/내 천수를 마치리라.(終吾年)’¹⁸⁾라는 짧은 작품인데 그 의미가 <창맹설>과 이어진다.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권필의 글에는 당대를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중정도설>을 통해 지혜나 능력과 무관한 운에 의해 좌우되는 당시의 정치 현실을, <창맹설>에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이익과 욕망을 좇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오당명> 같이 어떤 요행도 바라지 않으면서 자기 밭에서 나는 식량과 자기 샘물에서 나는 물에 만족하고 살다가 천수를 누리겠다고 말한다. 권필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생전>에도 이와 같은 그의 사유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생전> 해석과 관련하여, 권필이 생존했던 조선 중기 사회에서 주목할 부분이 또 있다. 건국 초기부터 유지되었던 억말론(抑末論)¹⁹⁾이 서서히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의 무도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 당대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 조선 사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물류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활성화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국제 무역과 상업 경제의 발달로 번성하게 되는 조선 후기의 서울 시정과 같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억말론이 붕괴되면서 상업 활동이 점차 성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조선 중기 사회의 상업적 경향을 살펴보면 권필이 생존했던 시기의

18) 『石州集』 外集 1卷, <四吾堂銘>, ‘食吾田 飲吾泉 守吾天 終吾年’(검색일: 2020. 09.08.)

19) 조선 사회가 유지했던 상업 억제 정책을 말한다.

조선 중기 사회의 풍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16세기 조선 사회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상품 유통 및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과전법 체계의 붕괴에 따른 생산관계의 변화로 각 계층의 잉여축적도 확대되어 갔다. 또한 지주제 확대에 의한 몰락 양반의 서울 집중과 이를 통한 상품의 집결은 서울을 대규모 상업 도시로 성장 시켰으며 대규모 자본을 이용한 활발한 상품 유통을 주도하는 대상인층이 존재²⁰⁾하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재산과 땅이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소를 팔아 말을 사서 행판을 하거나 토지를 임차하고 자신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²¹⁾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지속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농업을 본(本)으로 하는 조선 사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업의 번성과 시장의 활성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16세기 조선 사회의 이러한 양상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²²⁾

이와 같이 권필이 살았던 당시의 조선 사회는 그 동안 천업으로 여겼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의 한 복판을 살던 권필은 파란만장한 생의 질곡 속에서 부와 명예, 벼슬과 지위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계층의 분화로 인한

20) 백승철, 『16세기 富商大賈의 成長과 商業活動』, 『역사와 현실』 13권, 한국역사연구회, 1994, 242~243쪽.

21) 이경식, 『16세기 시장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집, 한국사연구회, 1987, 58쪽.

22) 명종(明宗) 2년(1547) 2월 7일 주세붕(周世鵬)이 올린 상소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앞을 다투어 시장의 이익을 차지하기를 희망하고 밭에 나가 땀 흘려 농사 짓기를 싫어하여 논밭이 차츰 비게 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해 9월 27일 이황(李滉)이 올린 글에는 ‘백성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반드시 시장을 통하여 교역하여 이를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억말론(抑末論)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실록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웹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검색일: 2020.09.08)

몰락 양반의 증가, 지주층의 확대와 흉년으로 인한 농업경제의 위축 등으로 시장의 확대 및 상업의 성행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의 개인적 경험과 당대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이 중첩된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총체적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으로서 당면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 권필은 당파에 휩싸인 정치적 소용돌이와 상업 활동의 점진적 성행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시기에 임진란이라는 총체적 혼란을 경험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모순된 현실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했을 것인데 이러한 그의 고뇌가 <주생전>에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주생전>의 주생과 인물 성격

<주생전>에는 위와 같은 조선 중기의 정치적·사회적 경향 및 그의 몇몇 작품에 등장하는 작가의 비판 정신이 작품의 이면에 침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 작품 통해 당대의 현실 인식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주생전>의 공간 가운데 전당(錢塘)에 머물던 시기, 즉 주생이 전당으로 가서 배도를 만나 배도의 집에 거처하면서 배도와 선화 사이에서 삼각연애를 한 시기와 배도가 죽고 호주(湖州)로 가서 선화와의 결연을 도모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이 시기 주생의 행위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시기에 등장하는 주생의 행위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주생전>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생전>에서 이 관점이 중요한 것은, 삼각연애가 펼쳐지는 시공간

은 <최치원>, <이생규장전>, <하생기우전> 등 기존 작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작품 자체만 보더라도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배도의 죽음에 대한 주생의 책임 등에 대한 작가의 모호한 서술 태도 등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생전>이 중국의 <곽소옥전>, <앵앵전>, <가온화환운기>, <취취전> 등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다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졌다.²³⁾ 특히 주생과 배도의 관계는 당 전기 <곽소옥전>을 적극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의 차이는, <곽소옥전>에서는 남성 주인공 이익이 여성 주인공 소옥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소옥의 복수로 이익이 불행해지는 것으로 서술되는 반면, <주생전>은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생전>의 작가가 이 부분을 비틀었다면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담아내고자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생전>에 등장하는 배도의 죽음에 대한 주생의 책임 문제나 배도의 죽음으로 인한 주생의 삶에 대한 일종의 비극적 경도는 어떤 연관성 속에서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우선 작품 서두에 등장하는 주생에 대한 서술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잠시 살폈듯이 주생은 과거에 수차례 낙방한 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업으로 삼았던 인물이다.

상자 속에 있던 돈 수천 냥을 꺼내어 그 절반으로 배를 사서 강호 사 이를 오갔고, 나머지 절반으로 잡화를 사고팔아 때때로 이윤을 취하여 생활을 꾸렸다.²⁴⁾

23) 소재영, 「석주권필소론」, 『논문집』 6집, 숭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6, 452~454쪽.;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6, 301~307쪽.; 정민, 앞의 논문, 100~107쪽.;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129쪽.

24) <周生傳>, ‘倒篋中有錢百千 以其半買舟 來往江湖 以其半市雜貨 取贏以自給’, 45 쪽/13쪽. 본고는 《화몽집》 소재 <주생전>을 대상으로 논의함을 밝힌다. 원문과 인용문은 이대형·박상석 외 2인이 번역한 『17세기 한국한문소설의 집성체

본고는 <주생전>의 해석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논의에서, 그가 과거에 낙방하여 상인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생으로 하여금 고향인 진당으로 가서 배도와 선화를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²⁵⁾이라거나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기능적 장치에 불과한 것²⁶⁾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진일보하여, 주생이 장사치로 변모 하는 과정은 주생의 행력이 예사롭지 않을 것임을 예감케 하는 것²⁷⁾이라는 논의, 당대의 천업으로 인식되었던 상업에 뛰어든 것은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위로서 이러한 주생을 긍정적 시각으로 그리고 있는 작가의 진보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²⁸⁾이라는 논의 등은 인용문을 작품 해석과 연관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이들 논의 역시 작품과 연관하여 그 예사롭지 않음에 대한 분석에 닿지 않고 있다는 점, 상업을 통한 탈중세적 시각과 연관되는 작가의 진보적 세계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본고는 주생의 상업 종사가 단순히 문학적 관습 혹은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수사적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주생의 상업 종사는 작품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생이 태학생이 된 시기는 1584년²⁹⁾으로 그의 나이 18세³⁰⁾ 때이다. 그는 수년 동안 태학생으로 있으면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자 비로소 속세를 떠날 뜻을 품게 된다. 그러면

《화몽집》』(보고사, 2016.)을 참고하였으며 번역문의 경우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원문과 번역문의 면수는 ‘원문면/번역문면’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5) 엄태식, 앞의 책, 131~132쪽.

26) 정규식, 『<주생전>을 읽는 즐거움』, 『어문학』 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149쪽.

27) 정한국, 앞의 논문, 91쪽.

28) 박일용, 앞의 책, 132쪽.

29) 작품 말미에 작가와 주생이 만난 시기가 계사년(1593)이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27세였다. 이를 기점으로 주생이 18세가 되는 시기는 1584년에 해당한다.

30) <周生傳>, ‘年十八 入太學’, 45쪽/13쪽.

서 배를 타고 다니며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당에 와서 배도를 만나게 된다. 이때가 1591년으로 그의 나이는 대략 25세 정도일 때다.³¹⁾

이렇게 본다면, 주생이 상업에 종사한 기간은 20대 초반 즈음부터 중반까지의 시간으로 대략 3~5년 정도의 시간이다. 짧지 않은 시간이다. 특히 작품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반으로는 배를 사고 반으로는 잡화를 사서 그것으로 거래하면서 먹고 살았다고 했으니. 20대 초반, 학문을 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상인의 삶을 선택한 주생이 이 당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³²⁾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간이 전 재산을 걸고 20대의 초·중반을 상업을 생업으로 삼았다는 점을 통해, 주생은 공명을 추구하는 당대의 일반적인 사대부와 달리 이익과 욕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작품에서, 주생이 상업 종사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작가가 서서히 변해가는 당대의 상업 지향적 경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생의 이러한 성격은 작품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그 하나가 주생이 선화의 침소에 침범하는 장면이다. 선화를 본 후, 선화를 품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던 주생에게 선화의 동생 국영의 글 선생이 되어 선화의 집에 가게 되는 기회가 온다. 이후 선화의 집에 머물면서 선화를 취할 기회만을 엿보다가 드디어 선화의 침소를 침범하게 된다.

31) 작품에서 이 시기의 연도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임진란(1592)의 발발과 계사년(1593) 조선 출정 등과 관련하여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생이 전당에 온 시기는 나이가 대략 25세 쯤 되었을 때다.

32) 기존 논의 가운데, 16세기 명나라 주요 통화(通貨)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생이 소유한 전 재산이 별 것 아니며 따라서 그는 영세 소상인의 면모를 벗어나지 않는다.(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35~336쪽.)고 주장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보다는 전 재산을 걸고 장사치의 생활을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내가 여기 오기는 본래 선화를 취해보자는 것이었다. 이제 꽃다운 봄이 벌써 끝나 가는데 기이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자니 사람 목숨이 그 얼마인가. 어두운 밤에 불쑥 찾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일이 잘 성사되면 경사스러운 것이고 안 되면 죽임을 당하면 그만이다.³³⁾

주생은 이 당시에 배도와 연을 맺어 함께 살고 있었다. 주생이 머물고 있는 곳은 선화의 집이었지만 엄연히 배도와 짝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주생이 선화를 취하기 위해 배도를 버리면서 인용문과 같은 결단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주생에게는 이미 한 명의 여인이 있었음에도 그는 더 큰 욕망(이익)을 위해 다른 여성을 품고자 한 것이다.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는 주생의 모습이다.

“담을 넘어 상중하고 구멍을 뚫어 엿보는 것이 어찌 군자가 할 짓입니까? 제가 부인에게 고하합니다.” 배도가 곧바로 몸을 일으키자 생이 황망히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사실대로 고하였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려 애걸하며 말했다. “선아와 나는 영원한 꽃다운 약속을 맺었는데 어찌 차마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오?” 배도가 마음을 돌려 말했다. “낭군께선 첩과 함께 바로 돌아가심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낭군께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니 첩인들 어찌 맹세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생은 부득이 다른 핑계를 대고 배도의 집으로 돌아왔다.³⁴⁾

위의 인용문도 마찬가지이다. 눈앞의 이익과 욕망을 우선시 하는 주생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배도가 주생과 선화의 관계를 알고서 이를 선화의 어머니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생은 자기와 선화는 꽃다운 맹세를

33) <周生傳>, ‘始吾來此 本圖仙花 今芳春已老 奇遇未成 俟河之清 人壽幾何 不如昏夜唐突 事成則爲慶 不成則見烹’. 52쪽/26쪽.

34) <周生傳>, ‘踰牆相從 鑽穴相窺 豈君子所可爲哉 我將白于夫人 便引身起 生惘憫抱腰 以實告之 且叩頭哀乞曰 仙娥與我 永結芳盟 何忍置人於死地 桃意方回曰 郎君便可與妾同歸 不然則郎既背約 妾豈守盟 生不得已托以他故 復歸桃家’. 56쪽/33쪽.

했는데 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위 인용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확인된다. 주생은, 배도가 선화와 자신의 관계를 부인에게 알리려 하자 배도의 허리를 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애걸하면서도 왜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느냐고 항변한다. 그런데 배도가 (선화의 어머니에게 고하려는) 마음을 돌려 주생을 타이르자 주생은 배도의 말을 순순히 따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배도가 주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기 위해 ‘나와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니 나도 (당신과의) 맹세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 말을 들은 주생은 어쩔 수 없이 배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다면 주생은 왜 배도의 이 말에 선화의 집을 순순히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배도가 말한 두 사람의 약속 때문일까? 아닐 것이다. 이 순간, 주생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는 배도의 도움 없이는 선화와 의 결연을 맺을 수 없음³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는 선화와 의 관계도 그러하거니와 설령 두 사람의 관계가 묵인되더라도 자신의 현 상황에서 선화와 의 혼인은 언감생심이다. 때문에 어떻게든 배도의 폭로를 막고 훗날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배도에 대한 미안함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의 전형이다.

어느 날 생이 생각하기를, 배도를 오랫동안 보지 않아 그녀가 의심할까 걱정되었다. 그래서 배도의 집으로 가서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³⁶⁾

<주생전> 해석에서 난해한 지점은 주생이 선화를 만난 이후 배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부분이다. 선화를 마음에 품고서 배도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주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더 젊고 더 예쁘고 돈 많고 지위 높은 상대를 원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감안하더라도

35) 배도가 죽자 주생이 선화와 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6) <周生傳>, ‘一日 生自念不見排桃 恐桃見怪 乃往桃家不歸’, 55쪽/31쪽.

중세적 질서 체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표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기존 논의 가운데 주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 명의 남성이 두 명의 여성과 동시에 연애를 지향했기 때문³⁷⁾이라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주생이 왜 동시에 두 명의 여성과 연애를 지향하려고 했는가, 즉 그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거짓말로 배도를 속이면서 불안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을 유지하려는 이 당시 주생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것은 <주생전> 전체의 해석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이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인용문은 주생이 선화와 한창 사랑을 나누면서 한 행위이다.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주생만의 독특한 면모다. 기존 애정전기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독점적 관계로 다른 애정 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특정 상대와 사랑을 나눌 때 다른 이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³⁸⁾ 반면 주생은 선화와 사랑을 나누면서 배도를 생각했다. 그렇다면 주생이 이 당시 배도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자신이 배도에게 의심을 사는 것을 걱정한 것일까? 배도와의 애정을 걱정한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주생이 배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선화를 위한 매개항인 배도가 의심을 품게 되면 선화를 취할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배도의 의심을 사전에 차단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생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상대의 심리까지 이용할 줄 아는 인물인 것이다.

갑작스러운 배도의 죽음 이후, 선화와 사랑의 주체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선화와 사랑이 끝났다고 판단하여 전당을 떠나는 장면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향한 주생의 욕망이 잘 드러난다.

37) 정규식, 앞의 논문, 138~144쪽.

38) 정규식, 앞의 논문, 143쪽.

그날 밤 수홍교 아래에서 자면서 선화의 집을 바라보니 은촛불이 마을 사이에 깜박였다. 생은 아름다운 만남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불 인연이 없음을 탄식하고 입으로 <장상사(長相思)> 한 곡을 읊었다.³⁹⁾

인용문은 배도를 장사지내고 배도의 계집종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후 주생이 한 행동이다. 이날도 배도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생은 배도에 대한 추모나 식솔들에 대한 연민은 없고 오로지 선화만을 생각하면서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아쉬워 한 것이다.

주생의 이러한 인물 성격은 그가 호주에 머무는 동안에도 지속된다. 배도의 죽음 이후, 선화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여겼던 주생은 호주에 사는 친척을 통해 선화와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외가 쪽 친척인 장노인(張老人)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장노인은 호주에서 이름난 갑부이면서 노승상 집안과 대대로 혼인을 맺어왔던 사이였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주생은 선화와 혼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었다.

생의 어머니 친척인 장노인은 호주의 갑부이며 평소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냈다. 생이 시험 삼아 의탁하러 가보니 장노인이 후하게 대접해주었다.⁴⁰⁾

인용문과 같이 주생은 장노인이 갑부이며 평소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의탁하고자 스스로 찾아갔다. 어찌 보면, 주생에게 있어 장노인은 배도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존재이다. 물론 장노인은 배도

39) <周生傳>, ‘是夕 宿于垂虹橋 望見仙花之院 銀燭絳燭 明滅村裡 生念佳期之已邁 嗟後會之無緣 口占長相思一闋’, 57쪽/36~37쪽.

40) <周生傳>, ‘生之母族 張老者 湖州巨富也 素以睦族稱 生試往依焉 張老待之甚厚’, 58쪽/37쪽.

같은 존재가 아니다. 주생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대상이며 배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렇지만 주생과 선화를 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배도와 유사하다. 더구나 장노인은 갑부에다 지체 높은 집안사람이므로 주생의 결핍을 충분히 채워서 선화와 이어주기에 더 없이 적합한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굳이 ‘試往依焉’라고 한 것일까? 바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 이익이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친척들과 잘 지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자신의 욕망, 즉 선화와 선화의 결연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가 쪽 친척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든 아니든 인사드리고 안부를 묻는 것이 당연한데도 주생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그뿐이라는 태도이다. 그의 인물 성격이 너무나 잘 드러난다.

지금까지 작품의 서두에 제시되어 있는 주생의 상업 종사를 바탕으로 작품의 이면에 감춰진 주생의 인물 성격을 고찰하였다. 20세 전후의 젊은 나이에 대략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 온 주생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배도에게 여러 차례의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모습, 선화와 자신의 관계가 발각되었을 때 배도를 대하는 모습, 배도가 죽고 배도의 집에서 곡소리가 그치지 않았음에도 선화만을 생각하는 모습, 장노인에 대한 소문을 알고 호주까지 가서 배도의 빈자리를 대신할 대상을 찾는 모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주생전>의 주생은 당대의 정치·사회 현실을 문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작가 권필이 창조한 독특한 인물이라 할 수 있으며 삼각연애는 그의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는 데 더 없이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다.⁴¹⁾

41) 물론 삼각연애는 앞서 언급한 <곽소옥전> 등과 같은 중국 작품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권필은 작품의 서두에서 상업 종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이익과 욕망을 중시하는 주생의 가치관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하였음을 암시했던 것이며 이후 삼각연애 시기 동안 이러한 성격의 인물이 보여주는 기이한 행위와 결말을 통해 당대 사회에 던지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했을 것이다.

4. <주생전>의 주제

지금까지 작가 권필이 생존 했던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그가 지은 몇몇 작품, 그리고 <주생전>에 등장하는 주생의 인물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점들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가이다.

결론적으로 작가 권필은 <주생전>을 통해 당시의 세태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아직 소설의 대중적 성행 혹은 다양한 장르의 분화 이전 시기이므로 기존의 애정전기소설을 매개 삼아 자신의 문제의식을 담아내고자 했지만 장르가 지닌 관습적 성향으로 작가 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주생전>이 명혼(冥婚)전기에서 탈피하여 몰락 양반의 상업 종사, 전쟁의 발발과 참전 등 당대의 현실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사실성을 획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서사적 구체성이 부족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익과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을 수단화하여 더 높은 벼슬(지위, 관직)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그 욕망을 추구하려는 작중 인물(주생)을 통해, 상업의 활성화로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현실과 벼슬이나 지위가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현실 등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생전>이 성취한 높은 산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작가가 서술자의 입을 통해

주생에게 말한 작품 말미에 있는 다음의 내용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부가 근심할 것은 공명(功名)을 얻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천하에 어찌 아름다운 여인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삼한이 이미 평정되고 육사(六師)가 장차 돌아갈 것이요, 동풍이 이미 주량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교씨(喬氏)가 타인의 집에 간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⁴²⁾

작가는 결국, 장부가 할 것은 여인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공명(功名)에 힘 쏟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전당과 호주에서 보인 주생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삼한이 평정되고 육사(六師)⁴³⁾가 돌아갈 것이며 주량과 교씨를 비유하여 주생을 위로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주생이 이미 깊은 병이 들어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 말은 위로의 말로만 독해되지 않는다. 결국, 작품은 전쟁 참전과 선화와의 소식 단절로 병이 들고 옥망하던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로 종결되는 것으로 그림으로써 작품의 비극적 정조를 고취함과 더불어 주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생전>에 형상화된 주생의 인물 성격, 즉 눈앞의 이익과 욕망에 매몰된 그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젊은 시절의 상업 종사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업을 버리고 이윤과 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시의 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생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선화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배도가 죽자 배도를 대신할 새로운 대상을 찾아 선화와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한 것인데 이는 자신의 능력

42) <周生傳>, ‘丈夫所憂者 功名未就耳 天下豈無美婦人乎 況今三韓已定 六師將還 東風已與周郎便矣 莫慮喬氏之鎖於他人之院也’, 61쪽/44쪽.

43) 전쟁에 동원된 군사들을 말한다.

이나 지혜와는 무관한 운이나 주변의 도움에 의지해서 뜻을 이루려는 당시의 정치 현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전쟁의 발발과 참전, 선화와의 소식 단절과 득병(得病) 등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면서 쓸쓸한 종말을 맞는 것으로 작품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 권필은 이를 통해, 당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는, 현실에 만족할 줄 모르고 눈앞의 이익과 출세에 대한 욕망만 좇는 상업 종사자들과 당대의 세력가들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운수에 따라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기도 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이익과 욕망이 아니라 공명(功名)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 것이다. 작가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주생전>의 주생을 젊은 시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설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 펼치는 기이한 행위와 그의 종말을 통해 당대 사회에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배도의 죽음에 대한 주생의 책임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 작가는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병든 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만나게 되는 주생을 통해, 배도의 죽음에 대한 우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도의 죽음에 대한 주생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녀가 죽자마자 호주로 가서 장노인을 만나 선화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배도에 대한 일체의 감성을 소거하고 이익과 욕망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인물을 통해 그의 비극적 운명을 전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주생전>의 주생을 통해 배도라는 한 사람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그녀를 매개로 더 큰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려다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게 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살핀 <창맹설> 등에서도 확인되듯, 작가가 <주생전>의 주생을 통해 이

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큰 것을 취하려는 당대 사회에 만연한 헛된 욕망, 즉 상업적 차원의 부와 정치적 차원의 지위(벼슬이나 신분)를 추구하는 당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업을 버리고 상업에 뛰어들어 부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당대의 상업 지향인들, 그리고 서인과 동인의 정쟁으로 정철이 실각하고 이산해가 주도하게 되는, 당시 치열하게 펼쳐졌던 현실 정치인들의 만족할 줄 모르고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생전>은 상업을 통한 자본 지향이라는 사회 현실, 능력이나 지혜와 무관한 자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정치 현실 등에 대한 작가적 현실 인식을 문학적 구조물로 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생전>이 삼각연애라는 독특한 상황이 펼쳐지는 애정전기소설을 넘어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현실 비판적 작품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작가 권필이 활동하던 조선 중기의 시대적 상황과 작품 속 주인공 주생의 인물 성격을 바탕으로 <주생전>을 재해석하였다. 본고는 <주생전>의 작가 권필의 생애와 그의 몇몇 작품들, 그리고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주생의 상업 종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이 남녀의 애정문제를 매개로 개인의 욕망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대의 시대상을 풍자하는 현실 비판적 작품임을 고찰하였다.

소설사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최초의 삼각연애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주생의 상업 종사를 작품 전체의 주제와 연관한 해석은 없었다. 본고는 이점에 주목하여 작가 권필의 생애와 그의 몇몇 작품들, 그리고 <주생전>의 서두

등을 중심으로 주생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생은 이익과 욕망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로서, 배도를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선화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작가의 생존했던 당대의 정치 현실과 연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삼각연애 시기 주생이 보여주는 독특한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주생전>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주생은 우리의 소설사에서 부와 지위, 벼슬 등에 대한 이기적 욕망을 가감 없이 표출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리고 <주생전>은 이러한 이기적 욕망이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서사화된 작품이다. <주생전>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들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런 인물을 창출하였으며 어떤 방식으로 형상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론적 측면이나 장르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고의 논점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각연애 시기 주생은 그가 젊은 시절에 상업에 종사했던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의 영향으로 배도를 선화라는 더 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 정도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배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를 속여 가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배도가 죽자 배도를 대신할 새로운 대상인 장노인을 찾아가서 선화와 의 결연을 지향했지만 결국 전쟁 발발과 참전을 통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로 쓸쓸한 운명과 조우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성격의 주생을 통해, <주생전>의 작가 권필은, 본업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익과 부만 좇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운수에 따라 관직에 오르고 내리는 정치인들이 펼치는 당대의 정치 현실, 그리고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시대상을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작품은 명혼(冥婚)전기를 탈피하여 몰락 양반의 상업 종사, 전쟁의 발발과 참전 등 당대의 현실적 요소들을 반영하는 사실성을 획득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서사적 구체성이 부족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람을 수단화하여 더 높은 벼슬(지위, 관직)을 차지하려다가 실패하자 또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그 욕망을 추구하려는 작중 인물(주생)을 통해, 상업 종사를 통한 왜곡된 사회 현실과 벼슬이나 지위가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운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 현실 등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주생전>이 성취한 높은 산문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눈앞의 이익과 출세에 대한 욕망을 좇는 상업 종사자들과 당대의 세력가들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운수에 따라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곳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기도 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로 인식했다. 따라서 이러한 세태를 비판하고자 당대의 대표적인 소설 갈래인 애정전기소설을 통해 주생 같은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이익과 욕망이 아니라 공명(功名)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작가는 당대의 사회 현실과 정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주생전>의 주생을 짧은 시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형상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삼각연애 시기에 등장하는 주생의 행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진다. 결국 작가는, 배도를 자신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아 그녀를 매개로 더 큰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려다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주생 같은 인물을 통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상업적 차원의 부와 정치적 차원의 벼슬을 추구하는 당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본업을 버리고 상업에 뛰어들어 부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던 당대의 상업 지향인들, 그리고 서인과 동인의 정쟁으로 정철이 실각하고 이산해가 주도하게 되는, 당시 치열하게 펼쳐졌던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풍자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논저

- 김수연, 『명대 주변부 문인의 삶과 <주생전>』, 『영주어문』 40집, 영주어문학회, 2018, 89~114쪽.
- 김일렬, 『주생전 소고』, 『어문논총』 11집, 경북대 국문학과, 1977, 169~184쪽.
-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6.
-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 박희병, 『전기소설의 문제』,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 백승철, 『16세기 富商大賈의 成長과 商業活動』, 『역사와 현실』 13권, 한국역사연구회, 1994, 242~274쪽.
- 소재영, 『석주권필소론』, 『논문집』 6집, 송전대학교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6, 441~458쪽.
- 엄태식, 『한국 전기소설 연구』, 월인, 2015.
- 이경식, 『16세기 시장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집, 한국사연구회, 1987, 43~91쪽.
- 이대형·박상석 외 2인, 『17세기 한국한문소설의 집성체 <화몽집>』. 보고서, 2016.
- 이정원,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 이종묵,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67~189쪽.
-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동양학』 22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5~47쪽.
- 전송열, 『<주생전>의 사실성과 그 한계』, 『한성어문학』 10집, 한성어문학, 1991, 107~129쪽.

- 정규식, 「<주생전>을 읽는 즐거움」, 『어문학』 131집, 한국어문학회, 2016, 131~156쪽.
- 정민, 「<주생전>의 창작 기층과 문학적 성격」, 『한양어문연구』 9집, 한양어문연구회, 1991, 81~126쪽.
- 정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태학사, 1999.
- 정병호, 「<주생전>과 <위경천전>의 비교 고찰」, 『고소설연구』 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305~324쪽.
- 정환국, 『17세기 애정류 한문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0.
- 지연숙, 「<주생전>의 배도 연구」, 『고전문학연구』 2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5, 317~350쪽.

2. 웹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의 웹 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BD 웹 사이트(<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re-reading <Ju-saeng-jeon>
- Focusing on the contemporary situation and
character -

Chung, Ku-Sik*

This paper aims to reinterpret the work based on the situation of the period in the middle of the Cho-son Dynasty when the artist Kwon-Pil was active and the character of the main character in the work. This paper discusses the life of the writer of <Ju-saeng-jeon>, some of his works, and the commercial engagement of Ju-saeng appearing at the beginning of <Ju-saeng-jeon>. Based on this, it was considered that this work can be read as a critical piece of reality that satirizes the contemporary times that pursue only individual desires and interests through the affection of men and women as a medium.

In the middle of the Cho-son Dynasty, when the artist was active, the political reality of fierce confrontation between Seo-in and Dong-in overlapped with the social reality of revitalization of commerce, and the confusion of Im-jin-ran was aggravated and the future was uncertain.

Through his work, the artist tried to satirize and criticize the current social reality, wisdom, and ability to pursue profits and wealth while abandoning his main job and engaging in commerce, but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day, which rises and falls in office according to

* Dong-a University.

luck. In order to embody such thematic consciousness, the artist condensedly presented Ju-saeng's history of commercial engagement at the beginning, and later, through sexual desire, drew on his own interests and desires.

Through this, through the literary characters (Ju-saeng) who have failed to occupy a higher position because of their desires and interests, the commercial-oriented reality that prioritizes profits and wealth, and the political reality in which the position or position is determined by luck rather than ability and wisdom. Are criticizing. Therefore, <Ju-saeng-jeon> can be said to be a work that built the artist's perception of the reality of the social reality of capital orientation through commerce and the political reality in which those who are not related to ability or wisdom occupy a high position in a literary structure.

Key Words: <Ju-saeng-jeon>, Kwon-Pil, Ju-saeng, interest, desire

■ 논문접수 : 2020년 11월 29일

■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5일

